

최인훈 소설 〈西遊記〉연구

- 주인공 독고준의 욕망과 심리 세계를 중심으로 -

박 해 량*

차 례

- | | |
|----------------------|-------------------|
| I. 서론 | IV. 자아비판의 상흔을 찾아서 |
| II. 서사구조 | V. 독고준의 심리 세계 |
| III. W시의 그 여름에 대한 욕망 | VI. 결론 |

국문초록

최인훈 소설 〈西遊記〉는 그의 여러 소설 중 가장 난해한 작품에 속한다. 비사실주의 소설로 기존의 소설과는 다른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는 소설에서 인물에 대한 심리 세계를 매우 치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의 심리는 그의 행동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인훈 소설에서 인물들의 성향은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거나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작가는 인물들의 사유 세계를 섬세히 묘사하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시대적 가치관과 개인적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이성에 대한 욕망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까지 인물에 대한

* 동국대학교 강사

심리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최인훈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 연구를 새로운 논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 소설의 난해성 해소와 연구 범위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西遊記>에서 주인공 독고준을 중심으로 그의 욕망과 심리 세계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문학에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문학연구에 있어 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연구하는 과정은 그 인물 행위의 동기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西遊記>에서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의 끝에서 환상 여행을 떠난다. 환상적인 공간 이동을 통하여 독고준은 기억에 잠재된 무의식 세계를 여행한다. 독고준의 여행 목적은 과거 'W시의 그 여름날을 기억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한 욕망의 실현이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강행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또한 어린 시절 경험한 자아비판의 상흔은 그 시절의 교실로 돌아가 지도원 선생과 대면함으로써 치유한다. 독고준은 여행내내 자아와 세계의 대립으로 균열이 심화되어 간다. 이러한 균열은 그를 내면세계로 침잠하게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여행을 통해 내면의 상흔을 치유하고, 현실을 인식하여 자아의 성장을 이룬다.

독고준은 여행하는 동안 부끄러움을 느끼고, 여행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아가 성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빚는다. 자아와 세계가 투쟁과 충돌을 통해 화해의 결실을 이루기도 하지만 다수의 인간은 투쟁과 충돌을 회피하고 내면으로 침잠하여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현실과 당면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을 성장의 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밖

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냉정하다. 독고준은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는 회색(灰色)인이다. 그러나 무의식의 환상 여행을 마친 후 자신의 방에서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려는 노력의 자세로 보인다.

<西遊記>에서 독고준의 욕망과 심리 묘사는 주인공을 매개로 한 행동의 의미와 심리 체계를 구조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고준이 혼돈된 세계에서 자아의 성장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인훈 소설의 다양한 분석과 연속성 있는 연구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부끄러움, 자아비판의 상흔, 자아와 세계의 대립, 자아의 성장, 정체성 확립, 중층구조, 욕망실현, 환상 여행, 현실비판

I. 서론

최인훈은 그의 소설에서 인물에 대한 심리 세계를 매우 치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이 하는 행동에서 그의 심리 세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최인훈 소설의 주요 인물에 대한 심리 연구를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인훈 소설은 초기에 사실주의와 비사실주의로 구분하거나 관념론으로 한정하여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텍스트성이나, 식민지론, 환상성, 정체성, 문학론 등의 주제로 논의의 방향이 확대되어 왔다.¹⁾ 최인훈 소설에서 인물들의 성향은

1) 연남경, 「최인훈 소설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양지욱,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22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거나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작가는 인물들의 사유 세계를 섬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인물에 대한 심리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²⁾ 본 연구는 최인훈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 연구를 새로운 논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최인훈 소설의 난해성 해소와 연구 범위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인훈 소설의 다양한 분석과 연속성 있는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인훈은 식민지 시대를 거쳐 전쟁과 분단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정치체제의 변화와 남한에서 험난한 20세기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체험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그의 체험과 그 당시 가졌던 많은 지식인들의 혼란한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문학은 현실비판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최인훈은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³⁾ 그가 받은 내적·외적 시련과 억압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혼란스러운 가치관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혼란은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최인훈은 그의 소설에서 ‘문학이란 무엇인

배경렬, 「최인훈 『서유기』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고찰」, 『인문과학연구』11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구재진, 「최인훈의 <태풍>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현대소설연구』2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김미영,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양운의, 「최인훈 소설의 주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황 경,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예술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장사흠, 「최인훈 소설의 정론과 미적 실천 양상-해겔 사상의 비판적 수용과 극복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등이 있다.

2) 1970-2014. 3. 게재된 논문조사 결과 아래 3편뿐이다.

김홍연, 「최인훈 소설의 인물과 서술 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이양식, 「최인훈 소설의 인물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최명민, 「문학에 투영된 자살의 심리사회적 이해: <광장>과 <숲속의 방>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29호,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10.

3) 최인훈, 「문학은 현실 비판이다」, 『사상계』, 1965. 10.

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한 작가이다.

그의 여러 작품 중 <西遊記>는 <灰色人>의 속편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남을 매개로 하여 의식을 탐구하고, 일부러 계산된 단절과 지리멸렬한 분위기를 묘사했다.⁴⁾ <西遊記>는 최인훈의 여러 작품 중 가장 난해한 작품에 속한다. 비사실주의 소설로서 기존의 소설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⁵⁾ 그로인해 다른 작품에 비해 <西遊記>에 대한 분석은 환상성이라는 논의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⁶⁾

김윤정은 <西遊記>에 나타난 시간의 사유를 통해 작품의 시간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西遊記>의 환상적 요소에 내재된 문학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인물과 공간의 반복과 변형으로 나타나는 <西遊記>의 환상성은 아이온의 시간 형식에 의해 구성된 존재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한다.⁷⁾ 박은태는 <西遊記>를 중심으로 최인훈 소설의 현실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을 ‘미로구조와 에세이 양식’으로 분석하였다. 최인훈 소설들의 독특한 형식들은 역사에 대응하면서 삶의 역사성을 밝히고 있으며, 비극적인 현대사 속에서 실존적 구원과 역사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기 위해 고고학적 방

4)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솔과학, 2005, 22-23면 참조.

5) 최인훈 소설의 이분법적인 인식은 한형구, “최인훈론-분단시대의 소설적 모험” (문학사상, 1984.4)에서 다루어지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사실주의: 『광장』, 『회색인』, 『크리스마스캐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두만강』

②비사실주의: 『가면고』, 『구운몽』, 『서유기』, 『총독의 소리』, 『태풍』, 『하늘의 다리』

6) 양윤모, 「최인훈의 <서유기> 연구 : 환상의 의미 분석」, 『어문학연구』8집,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8.

윤대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회색인>, <서유기>를 중심으로 :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한국학연구』1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등이 있다.

7) 김윤정,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 <서유기>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구보학보』4집, 구보학회, 2008.

법을 수행한다고 말한다.⁸⁾

그 외 <西遊記>에 대한 논문으로 송재영은 작품이 반 사실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 구조나 기술 방법 면에 있어 전통적인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고 한다. 독고준은 안주의 바탕을 잃은 불행한 지식인형 인물이며, 정신적인 방랑자라고 한다. <西遊記>는 최인훈의 고유한 작가적인 특징과 결합을 동시에 내포하는 작품이라고 한다.⁹⁾ 박혜경은 최인훈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고뇌에 찬 지식인의 자의식 세계를 관념의 언어로 파고든 작가라고 한다. <西遊記>는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은 정신적 카오스의 한 극단을 빚어낸 작품이고,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을 도저한 알레고리의 세계라고 한다.¹⁰⁾ 이선영은 <西遊記>가 상상세계를 전개하는 기법으로 현실과 역사에 대한 작가 자신의 뛰어난 관념을 진술하여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기법과 관념은 긴밀한 관계로 조화되고 있으며, 최인훈의 정신사를 펼쳐놓은 것으로 독고준의 물리적 시간은 극소화되어 있는데 비해 심리적 시간은 극대화되어 있다고 한다.¹¹⁾ 김성렬은 <西遊記>를 통해 최인훈의 문학적 실체를 밝히고, 한국적 문화형을 정립하는데 의의를 둔다. 주인공 독고준은 고향 W시로 여행하며 한국인의 삶의 역사에서 파행성과 균열성을 극복하는 사랑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여정의 추동력이라고 한다.¹²⁾

본 연구는 최인훈 소설 <西遊記>에서 주인공 독고준을 중심으로 그의 욕망과 심리 세계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문학에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문학연구에 있어 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요한

8) 박은태, 「최인훈 소설의 미로구조와 에세이 양식 : <서유기>를 중심으로」, 『수련어문논집』26집, 수련어문학회, 2001.

9) 송재영, 「분단시대의 문학적 방법」, 『서유기』최인훈 전집3, 문학과지성사, 1996.

10) 박혜경, 「역사라는 이름의 카오스」, 『서유기』최인훈 전집3, 문학과지성사, 2008.

11) 이선영, 「知識人の 意識構造」,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2) 김성렬, 「한국적 문화형의 탐색과 구원 혹은 보편에 이르기-최인훈의 『서유기』 연구」, 『우리어문연구』22집, 우리어문학회, 2004.

과제가 되어 왔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연구하는 과정은 그 인물 행위의 동기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최인훈은 소설에서 주인공의 심리묘사를 통해 주인공의 시대적 가치관과 개인적 가치관의 혼란을 이성에 대한 욕망으로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연구자는 <西遊記>를 <灰色人>의 연작소설로 보고, 주인공 독고준을 동일한 인물로 간주한다.¹³⁾ 연작소설로서 주인공 독고준의 심리 세계를 환상적인 공간이동과 더불어 독고준의 기억에 잠재된 욕망을 분석하고, 그로인하여 자아에 내재된 상흔을 중심으로 치유의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그의 관념적인 사유를 분석하여 독고준의 심리 세계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최인훈 소설의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혼돈된 세계에서 자아의 성장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모습을 분석할 것이다.

II. 서사 구조

<灰色人>은 시간적 배경이 1958년 가을 저녁에 시작해서 1959년 여름 저녁에 끝을 맺고, 공간적 배경은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끝난다. <西遊記>의 첫 장면은 '고고학 입문의 한 편'이라는 영화로 시작하지만 중심 내용은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서 나와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독고준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의 짧은 시간동안 독고준의 사유 세계는 환상적인 공간이동을 이루며 전개된다.

<西遊記>의 난해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먼저 작품의 서사를 공간이동과 주요등장 인물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른 내용에 중

13) 『西遊記』의 주인공 독고준은 『灰色人』에서 연속되어 나타난다.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작품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灰色人』에서 있었던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주인공 독고준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장소	주요인물	공간(장소) 이동에 따른 서사
1. 영상실		서문-이 필름은 고고학 입문 시리즈 가운데 한 편으로 최근에 발굴된 고대인의 두개골 화석의 대뇌 피질부에 대한 의미론적 해독입니다.
2. 2층 복도	독고준, 남자(5)	괘종시계가 2시를 알린다.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서 끝나는 지점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독고준을 끌고 복도의 어느 지점까지 가서 그를 놓아준다. 복도를 지나면서 쓰레기와 오물 냄새를 맡는다. 그러다가 아래로 떨어져 정신을 잃는다.
3. 어느 방 안	독고준, 남자(1)	쇠사슬에 묶인 독고준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에서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찾는다라는 내용을 본다. W시의 여름날을 기억하는 그녀가 자신을 찾겠다고 생각한다.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방송이 끝나고 어떤 남자가 들어와 사슬을 풀어주고 칸막이가 있는 방으로 그를 안내한다. 운명의 그녀가 자신을 찾는다라는 희망을 가진다.
4. 진찰실	독고준, 의사(2), 간호사	두 의사(대머리와 무테안경)는 의료 정책에 대해 논쟁하며, 독고준의 의견을 묻지만, 독고준은 회피한다. 두 의사와 간호사는 술추렴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가루약을 먹는다. 세 사람은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데 그 형체는 사라진다. 그 자리에 『대한간호원협회 월보』, 『대한의료 시보』라는 책이 놓여 있다.
5. 정거장, 지하실, 복도	독고준, 헌병(2), 일제 총독의 목소리	‘조선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일제는 패망하여 조선을 떠나지만, 40년의 잔악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온순한 태도로 그들을 떠나보내는 반도 백성의 모습에 그들은 반도 통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부는 반도에 남아 다시 반도를 점령할 그날을 기다리며 은인자중할 것을 권고한다.
6. 방 안	독고준, 논개, 헌병(2)	어떤 방 안에 들어서자 300년 동안 고문을 받은 논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독고준은 논개가 기다리던 그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와 결혼을 하면 그녀를 그 고문에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독고준은 그 여름날의 그녀를 만나러 가야하므로 논개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7. 연못가 정자	독고준	연못가 정자에서 한권의 책을 읽는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다 위에 배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두 번

		<p>째 이야기는 옛날에 아주 영험한 호랑이가 살았는데 늙어서 죽자 그 몸에 구더기가 산을 이루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p> <p>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낡은 창고에 버려져 있는 외로운 기계 이야기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담소아膽小兒와 학빈鶴彬이라는 이름에 얽힌 팔자에 대한 두 아이의 이야기이다.</p>
8. 정거장 (석왕사 釋王寺), 역장실	독고준, 역장, 검차원(2)	<p>석왕사釋王寺라는 정거장은 독고준이 어린 시절 수학여행을 왔던 장소였다. 지금 그 정거장에는 두 명의 검차원과 역장만이 있었다. 역장은 독고준에게 W시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와 여기서 함께 살자고 말한다. 그들이 요물로 변신하려는 순간에 폭음소리가 나서 독고준은 역장실을 빠져 나온다.</p>
9. 기차 안	독고준, 역장, 현병, 간호원, 방송 소리 (상해정부, 혁명위원회)	<p>기차를 타고 떠나는 독고준은 계속 같은 풍경의 야산과 별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걱정한다. 그때 방송에서 상해정부는 해방된 조국에 도덕이 없다고 비판하고, 사생결단의 피비린내 나는 결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상해정부는 전원이 사직하고 혁명위원회가 수립되었다고 방송한다. 위원장은 국가의 기초는 동족의 피라고 말하고, 독고준에게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겠으니 위원회로 출두하라고 방송한다.</p>
10. 정거장 (석왕사 釋王寺)	독고준, 역장, 이순신 죄수(사학자)	<p>기차는 석왕사釋王寺라는 정거장에 닿았다. 역장은 독고준을 감찰관 각하라고 부르며 열차 객실의 죄수를 안내한다. 죄수는 사학자로 '민족성'에 대해 말한다.</p>
11. 정거장 (석왕사 釋王寺)	독고준, 역장	<p>또다시 정거장, 석왕사, 독고준은 계속 석왕사 정거장을 못 벗어나고 있다. 숙직실에서 자고 있는 역장을 깨워 지금 떠나는 기차를 물어보나 역장은 독고준에게 그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며 떠나지 말라고 한다. 독고준은 그곳을 떠나기위해 역장의 비위를 맞추며 결국 떠나는 기차에 올라탄다.</p>
12. 기차, 정거장	독고준, 조봉암,이광수, 간호원,현병	<p>차량 사이에서 독고준은 조봉암을 만나고, 다음 정거장에서 이광수를 만난다. 남으라는 청을 거절하고 기차를 타고 떠난다.</p>
13. 꿈 속 (월남한 집,	독고준, 여동생숙, 남동생철,	<p>독고준은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의 몸이 구렁이가 되어 있다. 월남할 때부터 삼남매를 책임져야하는 만이로 동생들을 아낌없이 돌봐왔다. 그러나 자신은 지</p>

정거장)	지도원선생	금 동생들이 두려워하는 구렁이로 변해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다가 옛날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정거장의 벤치에 앉아 꿈이다.
14. 노트	독고준	벤치에 앉아서 떨어진 노트를 본다. 노트에는 내면적 공간과 외면적 공간에 대한 관념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5. 개찰구 -역사 안 -복도-방 -고향마을	독고준, 간호원, 검차원,역장, 이순신, 방송 소리(9회)	표를 사기위해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간호원을 따라 복도를 지나 어느 방에 들어가니 이순신과 헌병, 검차원, 역장 등이 있다. 그들은 독고준을 교실만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관을 한다. 잠시 휴정하는 동안 독고준은 고향 마을에 간다.(①운동장-②극장-③천주교당-④친구집-⑤냉면집-⑥운동기구가게-⑦시멘트집-⑧모래주머니-⑨토치카-⑩학교쪽-⑪인민위원장집-⑫비행기)
16. 법정 (옛날의 교실)	독고준, 지도원선생, 소년단 간부들	속개된 법정. 독고준은 어릴적 지도원 선생에 대한 감정과 현재의 감정에 대해 말한다. 지도원 선생은 독고준이 인민의 적으로 공화국을 공격하려 왔으므로 그에게 중신징역을 구형한다. 역장은 독고준의 변호인으로 독고준의 시를 증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한다. 재판장은 독고준을 석방한다.
17. 이층 방	독고준	긴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에 들어온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 문간에 서 있다가 그대로 물러나움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한다.

위의 표는 <西遊記>에서 공간이동에 따른 서사를 정리한 것이다. 다 음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를 구별한 공간 이동과 중층 액자구조층을 간단히 한 것이다.

현실 세계: 독고준의 방 →이유정의 방→독고준의 방

환상 세계: 2층 복도→방안→진찰실→정거장→지하실→복도→방안→정자→정거장(석왕사)→기차안→정거장(석왕사)→정거장(석왕사)→기차→정거장(석왕사)→기차→꿈(구렁이변신)→정거장(석왕사)벤치→개찰구→역사안→복도→방→고향마을(①운동장-②극장-③천주교당-④친구집-⑤냉면집-⑥운동기구가게-⑦시멘트집-⑧모래주머니-⑨토치카-⑩학교쪽-⑪인민위원장집-⑫비행기)→교실(법정)→길→복도→(현실계)이층 방

중층구조층	내용
1층(이야기 첫 부분)	고고학자의 서사(영화 필름)
2층(액자구조1층)	독고준의 현실계 서사
3층(액자구조2층)	독고준의 환상계 서사
4층(액자구조3층)	이야기5-석왕사회귀①②③④⑤-구렁이 변신담-귀향담

<西遊記>는 크게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현실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환상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환상 세계에서의 공간의 이동은 반복적인 장소로 회귀하는 구조를 이루고, 시간의 연속성은 무시간성을 추구한다.

<西遊記>의 중층구조는 이야기의 첫 부분을 ‘고고학 입문’의 영상 필름으로 시작한다.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서 나오는 현실 세계가 1층 액자구조이고, 독고준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의 환상 세계가 2층 액자구조이다. 또한 독고준이 환상 세계에서 다시 꿈속으로 자신이 구렁이로 변신한 이야기는 3층 액자구조를 이루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층 액자구조의 형식은 그 서사구조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西遊記>의 면밀한 서사 정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灰色人>이 서사의 흐름 속에 수시로 독고준의 상념들을 끼워 넣어 서사의 진행보다는 사변적인 관념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마지막 장면까지 독고준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실감을 유지한다. 그러나, <西遊記>의 독고준은 마치 현실의 시공간과 분리된 환상의 세계를 떠도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정형의 입자 같은 느낌을 준다.¹⁴⁾ 그것은 <西遊記>에서 독고준의 사유 세계가 <灰色人>에서 보다 깊이 있게 표현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고준의 사유 세계는 <西遊記>에서 여러 명의 역사적 인물과 만나서 대화로

14) 박혜경, 앞의 논문, 368쪽.

그의 역사관을 논의하고, 과거의 상흔에 대한 치유를 위해 자유로운 사유와 논쟁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다. 이것은 독고준의 사유 세계가 혼돈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과정이다.

오승은의 <西遊記>는 중국에서 <목천자전(穆天子傳)>이후 서방 낙원에 대한 여행기로 가장 저명한 사대기서(四大奇書) 중의 하나이다.¹⁵⁾ <西遊記>는 동아시아 판타지의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西遊記>의 환상적인 내용들은 큰 도리를 밝히기 위한 장치이고, 깨달음을 통해 자기완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마음의 행로를 환상으로 그려낸 것이다.

최인훈의 <西遊記>가 고전 <西遊記>와 비슷한 여행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작품의 구조적인 안정을 의도한 것이다. 또한 고전적 모험소설들이 그렇듯 <西遊記>의 기본구조도 ‘이탈과 되돌아 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西遊記>는 새롭고 낯선 공간으로의 모험이 아니라 ‘기억과 무의식’의 정신적 영역으로의 모험이다.¹⁶⁾

15) 『西遊記』는 토착적인 서방 낙원설과 불교의 서방정토설이 결합하여 빚어낸 환상문학의 걸작이다. 당나라 때에 현장(玄奘, 596-664) 스님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갖고 왔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다양한 상상을 가미하여 지어진 소설이다. 작가 오승은(吳承恩, 1506-1582)은 『西遊記』의 전신인 『대당삼장취경시화(大唐三藏取經時話)』와 『서유기잡극(西遊記雜劇)』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전해지는 100회본 『西遊記』를 완성하였다.

『穆天子傳』은 (동아시아) 주목왕(周穆王, 기원전 1001-947)이 여덟필의 준마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서쪽 끝까지 가서 곤륜산(崑崙山)의 여신 서왕모(西王母)를 만나 사랑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여행담이다. 서기 281년, 서진(西晉) 무제(武帝) 시절의 어느 날, 도굴꾼에 의해 발굴되어 빛을 보게 된 주목왕의 여행기는 학자 순욱(荀勗)이 정리하여 중국의 중요한 자료로 남아있다.

정재서, 「여행의 상징의미 및 그 문화적 수용-목천자전(穆天子傳)」에서 최인훈의 『서유기(西遊記)』까지, 『중어중문학회』33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3, 276-280쪽.

16) 박은태는 『서유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의 삼차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위르겐 슈랍케가 나누는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시간에서 개인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을 매개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시간의 범위에 속한다고 말한다. 박은태, 앞의 논문, 176-177쪽.

Ⅲ. W시의 그 여름에 대한 욕망

윙은 무의식의 분석에서 무의식의 개념과 개인적·보편적 구조를 제시하고자 꿈의 상징성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윙은 모든 꿈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꿈은 본인의 인생에 관계하고 있으며, 심리적 요소로서 모든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 꿈이 하나의 배열이나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패턴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음의 성장과정이다. 마음의 성장은 의지력에 의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생기는 것으로 그것은 꿈속에서 자주 나무로 상징된다. 꿈속에서 등장하는 음산한 통로는 개성화의 과정이 시작됨에 있어 무의식과의 첫 만남의 느낌을 표현한다. 무의식은 자주 복도나 미로, 미궁 등에 의해 상징화된다. 기묘한 통로, 방, 지하실 안의 잠겨 있지 않은 입구 등의 미로는 고대 이집트의 지하세계를 연상하게 한다. 그것은 무의식과 그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 그 무의식의 그림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열려 있는가’를 나타내고, 기이하며 조화되지 못한 요소가 무의식의 영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¹⁷⁾

<西遊記>는 독고준이 “想念의 走馬燈을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밟으면서 그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8쪽)라고 시작한다. 독고준은 1층에 있는 이유정의 방에서 나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독고준의 무의식 여행을 서술하는 것이다.¹⁸⁾ <西遊記>의 중

17) 지하실은 꿈을 꾸는 사람 마음의 지하실이라고 볼 수 있다. 기묘한 건물에 돌연 나타난 친구는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이 인격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꿈에서 큰 집이나 통로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심적 확대에 관해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아직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M. L. 폰 프란츠, 『C. G. 융 심리학 해설』,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2008, 6-28쪽 참조.

18) 본 연구자는 『西遊記』에서 독고준의 여행은 무의식 세계의 환상 여행으로 규정한다.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서 나와서 자기 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든다. 그것은 분명 그가 의식하지 못하

심 서사는 주인공 독고준이 ‘W시의 그 여름날’을 향해 환상적인 여행을 하는 부분이다. <灰色人>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유정의 방으로부터 나온 독고준이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 계단 끝에서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체포당한다. 긴 복도를 지나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 하강하는 구조 속에서 환상 세계로 들어간다. 독고준이 지나온 긴 복도는 그의 무의식 세계이다. 독고준의 무의식은 ‘개성화 과정’에 따라 마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독고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 쇠사슬에 묶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바닥에 떨어진 신문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기사를 읽는다. W시의 여름날을 기억하는 그녀가 자신을 찾는다는 생각에 그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한다. 그리고 환상 세계에서 그의 목표가 된 ‘그 여름날의 그녀’를 만나고 싶은 욕망으로 그는 여행을 시작한다. 그 여행은 그 여름날을 기억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한 그의 욕망의 실현이다.

① 폭음 소리가 들려온다. W시의 그 여름 하늘을 은빛 날개를 번쩍이면서 유유히 날아가는 강철 새들의 그 깃소리가. 태양도 그때처럼 이끌거렸다. 둥근 백금의 허무처럼. 기체의 배에서 쏟아져내리는 강철의 가지, 가지, 가지. 그곳으로 독고준은 가고 있었다.(14쪽)¹⁹⁾

② 그 오르간 소리를 덮어누르면서 은은한 폭음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새파란 하늘을 날아가는 은빛의 강철의 새들. 넓고 몽실하게 떠도는 여름 구름의 눈부신 백白. 인적없는 도시의 열려진 대문들과, 그 속으로 들여다보이는 뜰에 피어 있는 하얀 꽃. 어느 때보다 자신 있게 우뚝 솟아 있는 천주교당의 뽕죽 지붕. 아하, 하고 독고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 여름이 내 목숨이 될 줄이야. 지금 그에게는 그 여름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47쪽)

는 무의식 세계이고, 그가 여행하는 곳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 세계에서 가능하므로 독고준의 여행은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환상 여행으로 간주한다.

19) 최인훈, 『西遊記』 최인훈 전집3, 문학과지성사, 2008, 이하 인용쪽수만 기재함.

③ 유리창이 가늘게 떨리면서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다. 떨리서 가까워지고 있는 폭음이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떼를 지어 어느 하늘을 날아 오르는 소리다. 부드럽고 그러나 단호하게 무쇠의 근육을 진동시키면서 그들은 날아오고 있었다. 강철의 새들이.(100-101쪽)

예문①②③은 그 여름날의 폭음을 반복적으로 연상하는 장면이다. 독고준은 어린 시절 경험한 전쟁 속의 폭격을 아름다운 강철새들의 날아오름으로 표현한다. 그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의 포화 속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의 관념과 시각은 전쟁의 잔인함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의 비상소집이라고 하지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포화 속을 가야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상상이라는 환상으로 그를 이끈다. 전쟁의 두려움은 강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짓과 은은한 폭음이라는 환상으로 기억하게 만든다. 그가 경험한 현실이 너무 두려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참혹한 전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여 기억하는 것이다. 파괴된 도시 속에 피어있는 하얀 꽃과 천주교당의 뽕족지붕은 그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잊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독고준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잔인한 전쟁의 기억들이 무의식 속에서 아련한 모습으로 감추어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의식은 그 전쟁의 잔인함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의 무의식은 그 여름의 운명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운명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물건일 뿐이다. 그의 윤리는 물건들의 저 인색한 법칙만을 따른다. 운명을 만나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다. 없는 속에서 푸짐함을 본다. 그의 생애는 이제 저 바닷가 모래밭 속에 파묻혀도 그의 눈에는 대뜸 알아볼 수 있다. 그의 생애가 비록 모래 한 알처럼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운명을 만난 날, 폭음의 여름, 저 강철의 새들이 잔인한 계절의 장막을 열고 도시의 하늘이 날아온 그날을. 오, 나는 얼마나 사랑하

는가, 나의 생애의 자북磁北을 알리던 그 바늘의 와들거림을 나는 생각한다.(15쪽)

독고준의 여행은 W시의 그 여름 날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 여름날에 우리가 더불어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진이 실린 신문의 광고란을 보고 독고준은 자신이 받았던 계시를 생각하면서 비로소 여행의 목적을 발견한다. ‘그 여름날의 계시’는 독고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운명이요, 아니마적인 사랑이다.²⁰⁾

남성 아니마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그 어머니에 의해 형성된다. 어머니가 자기에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니마는 자주 화를 내고 음산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심술궂음을 나타낸다. 남성 마음속의 부정적인 모성(아니마)의 이미지는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세상의 일은 모두 무의미하다. 다른 사람은 별개이지만……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아니마는 권태감이나 병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인생의 모든 것은 슬프고 답답한 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두운 기분은 사람을 자살로까지 이끌고, 그 경우 아니마는 사령(死靈)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아니마상을 ‘운명의 여인(femme fatale)’이라고 부른다. 그리스의 사이렌(Siren)이나 독일의 로렐라이는 아니마의 위험한 측면을 인격화하고 파괴적인 환상을 상징한다.

아니마는 사랑과 행복과 어머니의 따뜻함 등에 관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꿈-현실로부터 멀어지도록 남성을 유혹하는 꿈-을 상징한다. 남성 인격 속의 부정적인 아니마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절하시킬 목적으로 조

20) 융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남성상을 ‘아니무스(animus)’, 남성에게 나타나는 여성상을 ‘아니마(anima)’ 라고 명명했다. 아니마는 남성의 마음에서 모든 여성적인 심리경향을 인격화한 것으로서, 그것은 막연한 느낌이다. 무드, 예견적인 육감, 비합리적인 것의 감수성, 개인에 대한 사랑의 능력, 자연물에의 감정, 무의식과의 관계 등이다. M. L. 폰 프란츠, 앞의 책, 39쪽.

룽과 악의에 찬 연약한 의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값싼 진실의 왜곡과 미묘한 파괴성을 갖는다. 어머니에 대한 남성의 경험이 바람직하다면 그는 여자처럼 된다는가 여성의 재물이 되어 인생의 곤란성과 맞설 수 없게 된다. 남성을 감상주의자로 만든다.

빈번히 생기는 아니마의 표상은 에로틱한 형태의 공상을 키운다. 인생에 대한 감정이 성숙되지 못한 채로 있을 때 강박적인 경향을 띠기도 한다. 아니마는 남성에게 어떤 특정한 성질로 나타난다. 남성이 어떤 여성과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그것이 즉시 '그 사람'임을 알고서 돌연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니마의 존재가 원인으로 되어 있다.²¹⁾

독고준이 찾는 W시의 그 여름날을 기억하는 그 여인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아니마상과 같은 존재이다. 그녀는 그에게 누님이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현실에서 그는 그녀도 누님도 어머니도 만날 수가 없다. 그러한 독고준의 현실은 너무나 고독하다. W시의 그 여름날 그녀를 찾아가는 독고준의 여행은 그의 무의식 세계에서 그녀를 만나고자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그 여름의 기억은 독고준 삶에 큰 의미를 차지한다. '운명', 생애의 '자복'으로 지칭되는 그 여름의 기억은 독고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은 그 여름의 기억 속에 그 여름의 첫 경험과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에 대한 참상 등이 함께 있다. 현재에서 그 여름을 다시 욕망하게 하는 '운명', 그것이 바로 환상이다.²²⁾ 환상은 우리가 무엇인가

21) M. L. 폰 프란츠, 앞의 책, 44쪽.

22) 환상(판타지)은 허구적인 '구성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망들이 성취되는 장소이고, 양식이다. 판타지 속 사건들은 객관적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프로이트는 판타지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판타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상징화될 수 없는 실재계의 파편들이다. 라캉에게 판타지는 실재계적 진리가 드러나는 동시에 거부되는 장소이다, 상징화될 수 없는 진실의 파편들이 상징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판타지는 욕망의 근원에 이르는 길인 동시에 그것에의 접근을 방어하는 상징적 베일이다. 진리는 판타지라는 베일의 형태로만 드러난다.

를 욕망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독고준이 말하는 ‘운명’은 W시에 도착하여 그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인제야 그 여름에 도착했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였지만 그 소리는 문 저편에서, 그 문의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열었다’(353쪽)에서 그가 연 것은 그의 방문이었고, 그는 문을 닫고 자기 침대에 걸터앉는다. 그 문은 그 여름을 향한 문이 아니라 독고준의 방문이었던 것이다. 그가 닫은 방문은 그의 무의식 세계의 문이다. 그는 이로써 무의식의 환상 여행을 마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그 여름이라는 욕망의 대상을 찾아 마침내 그 여름에 도착하였지만 그가 만난 것은 그의 현실인 것이다. 그의 욕망 대상은 그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그 여름의 기억은 독고준이 가는 곳마다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지만 그가 의식하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환상인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든 환상 세계에서든 독고준의 아니마상은 ‘그 여름날’의 방공호 속에서 첫 성체험을 가졌던 여성이다. 그 후 독고준은 그가 만나는 여성들을 그의 아니마상과 비교한다. <灰色人>에서 독고준이 만나는 여성은 김순임과 이유정으로 한정되지만 그녀들을 그가 생각하는 아니마상에 견주어 본다. <灰色人>에 등장하는 전도사 김순임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도 그녀와 방공호 속의 여성이 닮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독고준의 여성관은 양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마저도 혼란을 겪는다. 그의 아니마상에서 형성된 여성상은 순수함과 성스러움인데 그의 본능적인 욕망은 관능적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므로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전도사 김순임의 순수하고 성스러운 면은 독고준의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고, 관능적인 이유정에게 성적인

유종호 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1038쪽. 이러한 관점에서 『西遊記』에서 나타나는 W시에 대한 기억은 독고준에게 있어서 무의식 세계의 환상으로 볼 수 있다.

매력을 느끼고,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灰色人>의 결말에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을 찾아간 것은 그의 내적 갈등과 욕망을 여성으로 충족하고자 한 이유이다. 그러나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에 들어갔다가 ‘문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섰다가 그대로 물러’나온다. 이유정의 방에서 나왔을 때 독고준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은 그가 지나온 환상 세계에서도 계속 느끼는 감정이다. W시의 그 여름날의 여인을 찾으러 간 독고준은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는 긴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온 길은 자아비판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IV. 자아비판의 상흔을 찾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성년이 되기까지 점진적인 자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개인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서서히 인지한다. 유아기 최초의 꿈은 마음의 기본적인 구조를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그것이 훗날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나타내기도 한다.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연령에 이르면 그때부터 자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시기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게 된다. 어떤 어린이들은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매우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고독감의 일부를 이룬다. 개성화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인격이 상처입고 그것에 따르는 고뇌에 의해 시작된다. 자아는 그 의지나 욕망이 방해되었다고 느끼고, 그 방해를 어떠한 외적인 것에 투영한다. 자아는 신이나 윗사람이나 배우자를 어떠한 장애가 된 것의 책임자로서 비난한다. 자기와의 첫 만남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고, ‘내적인 빛’은 처음 한동안 함정에 빠져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아를 잡으러 오는 사냥꾼처럼 생각한다.²³⁾

환상은 현실 세계에 있어 죽음이나 부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듦으로 결여(absence)를 등장시킨다. 즉, 무의식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는 것이다. <西遊記>에서 중심사건은 독고준이 W시의 여인으로 부터 자신을 찾는다는 기사를 보고, 그녀를 찾아 여행을 시작하여 마침내 W시에 도착하는 것이다. 독고준은 어린 시절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북한에서의 생활에 안정하지 못한 아버지가 월남한다. 그로 인해 독고준의 학교생활은 공산정권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이른다. 독고준이 국어시간에 낸 작문 숙제와 역사에 대한 견해는 부르주아적 사고라는 이유로 지도원 선생과 친구들로부터 자아비판을 받는다. 자아비판의 상흔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의 독고준에게 지울 수 없는 외상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유년시절의 억압은 독고준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잊혀지지 않는 상흔으로 그의 무의식에 놓여 있다. 그의 무의식은 W시의 그 여를 기억하며 그의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기 위해 환상 여행을 시작한다.

독고준 저는 무서웠습니다.

.....중략.....

독고준 저는 피교육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지도원 피교육자의 권리란 무엇인가?

독고준 피교육자는 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권리입니다.

지도원 아무 일을 해도 내버려두라는 것인가?

독고준 아닙니다. 비록 과오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3) 이러한 자각은 세상의 불완전성과 자기 자신의 내부의 악이 의식된 것이다. 어린이는 외계로부터의 요구와 내적인 충동에 대처하고자 힘쓰게 된다. 의식의 정상적인 발달이 방해되면 어린이는 외적·내적인 곤란을 피하여 내적인 '요새' 속으로 달아난다. 꿈이나 무의식의 소재에 의한 상징적인 그림은 원이나 사각형으로 핵(核)의 주제를 보여준다. 마음의 핵은 의식의 모든 구조적인 발달에 뿌리를 둔 인격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나타낸다. 핵에서 자아의식의 확립방향이 설정된다. M. L. 폰 프란츠, 앞의 책, 17-21쪽 참조.

지도원 왜 그런가?

독고준 아들은 미완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형무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비판회에서 비판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독고준 그것은 나에게 형무소였습니다.

지도원 그것이란 뭔가?

독고준 학교 말입니다.

지도원 학교가 왜 형무소였는가?

독고준 학교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원 공화국의 시민이 되는 곳이다.

독고준 공화국의 시민이란 이름의 인간이 되는 곳이다.

지도원 그렇게 말을 바꿔서 무슨 다름이 있는가?

독고준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아동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약속을 배워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동은 그 사회의 약속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하며 약속을 모르는 자가 저지른 실수는 비판이 아니라 숙달 통보通報를 반복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마치 약속을 잘 아는 사람이 일부러 어긴 것처럼 공박하고 인민의 적이며 부르주아라고 헐박하였습니다. 당신은 공화국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있지도 않은 적을 말합니다.(326-329쪽)

독고준이 W시의 그 여름으로 긴 여행을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자아비판이 이루어졌던 ‘옛날의 그 교실’이었다. 그 여름의 기억이라는 ‘운명’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독고준에게 깊은 정신적 외상(truma)으로 자리 잡은 자아비판의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다. <西遊記>에서 독고준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W시의 그 여름날의 그녀를 찾아서 여행을 계속한다. 여행 중에 그는 ‘환자’, ‘정치범’, ‘그 사람’, ‘감찰관’, ‘정신병 환자’ 등으로 불리며, 석왕사역을 반복하여 여행한다. 독고준은 W시의 그 여름을 향해 역장과 검차원의 애원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만 그가 도착하는 곳은 석왕

사역이다. 독고준의 무의식은 석왕사를 여행하는 그 시절의 기억에서 멈추어진 것이다.

프로이트는 단시간 내에 심적 생활 속의 자극이 고도로 증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서 에너지의 활동에 지속적인 장애를 주는 것을 ‘외상적(外傷的)’ 체험이라고 말한다. 또한 과거의 어느 시기의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현재와 미래로부터 몸을 피하려는 현상을 ‘고착(固着)’이라고 말한다. 정신분석에서 노이로제의 모든 증상은 무의식적인 심적 과정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증상은 무의식의 과정이 의식되면 모두 소실된다. 즉, 이러한 증상을 소실시키는 방법은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⁴⁾

독고준은 어린 시절 자아비판이라는 ‘외상적 고착’에 의해 무의식속의 환상 여행을 강행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독고준은 기억 속에 자신을 억압하는 지도원을 만나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억압을 해소할 기회를 맞게 된다. 그는 피교육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동은 미완성품이므로 비난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인간이 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지도원은 오히려 아동을 협박하고 인민의 적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지도원과 독고준의 논쟁은 독고준이 지도원에게 당당히 맞섬으로 그의 고착된 외상(外傷)을 치유하려고 애쓴다. 독고준은 과거의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지도원은 여전히 그를 썩은 부르주아며 인민의 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역장과 이성병원은 독고준을 변호한다. 이성병원은 그를 가치 체계의 다원화 현상이 빚어낸 판단 감각의 혼란에서 오는 정신사병 환자로 규정한다. 결국 재판의 결과는 독고준의 무죄이다. 이로써 독고준은 과거의 외상(外傷)에서 어느 정도 치유되고, 고착(固着)에서 자유로워진다.

24) S.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역, 범우사, 2008, 282-295쪽 참조.

독고준은 지도원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면서 내면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기억을 연상한다. 가족들에 대한 회상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철이 들어 그를 제일 사랑해주었던 것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계시(啓示)처럼’ 느끼게 된다. 결국 그가 도달하는 곳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독한 독고준의 자아비판 상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정착지인 것이다. 독고준에게 어머니는 그가 찾는 아니마상인 것이다. 독고준의 아니마상은 그 여름의 그녀이며, 누님이고, 어머니이다. 그의 외상을 치유하는 과정은 아니마상을 찾는 과정이며, 그 아니마상은 어머니이다.

V. 독고준의 심리 세계

최인훈은 <西遊記>에서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라는 기법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의식의 흐름은 외부적 시간을 자연주의적인 지속성 속에 채워 넣고, 내적으로 체험된 시간의 심층을 소유한다. 또한 사실 그대로의 생생한 인지(認知)뿐만 아니라 오랜 과거의 시간대를 헤매고 다니거나 무시간적으로 상상된 신비로운 내용들을 폭로하는 회상(回想)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측정되고 재현된 시간의 길이는 피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 측량할 수 없는 정신적 시간의 깊이가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²⁵⁾

독고준의 심리 세계는 ‘W시의 그 여름’에 대해 욕망하고, ‘자아비판의 상흔’을 치유하며 마음의 성장을 이룬다. 그의 심리 세계를 여행 중에 일어난 다양한 경험과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5) 위르겐 슈랍케, 『현대소설의 이론』, 원당희·박병화 역, 문예출판사, 1995, 182쪽.

1. 환상적인 공간 이동

<西遊記>에서 독고준은 환상 세계로 여행하면서 반복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반복의 공간은 석왕사(釋王寺)역이다. 먼저 환상 세계에서의 공간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상 세계: 2층 복도→방안→진찰실→정거장→지하실→복도→방안→정자→정거장(석왕사①)→기차안→정거장(석왕사②)→정거장(석왕사③)→기차→정거장(석왕사④)→기차→꿈(구렁이변신)→정거장(석왕사⑤)벤치→개찰구→역사안→복도→방→고향마을(①운동장-②극장-③천주교당-④친구집-⑤냉면집-⑥운동기구가게-⑦시멘트집-⑧모래주머니-⑨토치카-⑩학교쪽-⑪인민위원장집-⑫비행기)→교실(법정)→길→복도→(현실계)이층 방

독고준의 환상적인 공간이동은 정거장 석왕사(釋王寺)역을 중심으로 반복된다. 독고준은 계속 'W시의 그 여름'을 향해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지만 그가 도착하는 곳은 석왕사역이다. 석왕사역은 독고준이 어린 시절 수학여행을 왔던 장소이다. 지금 그 역에서 두 명의 검차원과 역장이 독고준을 기다리고 있다. 역장과 검차원들은 독고준이 W시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 남아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애원한다.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기차를 타고 떠나지만 도착하는 곳은 그가 떠났던 바로 그 석왕사역이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지만 그는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고, 역장과 검차원들은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독고준에게 애걸한다. 그러다가 그들이 요물로 변하는 순간에 독고준은 다시 기차를 타고 떠난다. 이렇게 석왕사역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한다.²⁶⁾ 기차에서 바라본 창밖의 풍경도 타다만 숲기둥으로 가득한 산과 들이다. 성한 나무 하나 없는 풍경들이 기차를 타는 동안 반복되어 나타난다. 재목이

26) 정거장 석왕사는 5회 등장한다. 석왕사역을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4회 반복한다.

가득 쌓인 석왕사역도 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같은 모습인 석왕사역은 독고준의 기억 속에 잠재해 있는 과거의 모습이다. 독고준의 기억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그의 기억은 그때 그 시간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다.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독고준은 의심도 하지 않고 계속 W시로의 여행을 강행한다.

용은 무의식 속에서 마음의 성장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꿈속에서 자주 나무로 나타난다고 한다. 독고준은 정체된 내면의 성장을 위해 무의식 속에서 반복적인 여행을 감행한다. 그의 반복되는 여행에서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은 타다만 숲기둥의 나무들이다. 그의 기억은 전쟁으로 파괴된 고향의 모습에 정지되고, 타다만 숲기둥의 나무들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흔이다. 그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여행을 계속한다. 그의 무의식 세계는 어린 시절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므로 그는 환상 여행을 통해 끊임없는 치유의 과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지나온 곳-①운동장-②극장-③천주교당-④친구집-⑤냉면집-⑥운동기구가게-⑦시멘트집-⑧모래주머니-⑨토치카-은 모두 파괴된다. 방송에서 악질적인 간첩이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잠입했으며, 그를 잡아야하며, 그의 이름은 독고준이라고 방송한다. 독고준은 W시의 주요 시설을 ‘회상(回想)이라는 흥기’로 파괴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회상은 기억이며, 상상이다. 상상은 결국 환상이다. 그가 소유하는 기억들은 그가 환상 속에 지나오며 그의 무의식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독고준의 무의식은 그가 지나온 길을 회상하며 마음의 성장을 위해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다른 무의식 한 편에서는 그가 그 기억에 정지한 채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그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성장을 방해하는 무의식의 부분으로 역장과 검차원이 등장한다. 그들은 독고준이 그대로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방해의 존재들이다. 반면 다른 방송에서는

독고준을 정신사(精神史) 병자이며, 가치 체계의 다원화 현상이 빚어낸 판단 감각의 혼란이라고 말하며 그를 온전히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방송 또한 독고준을 환자로서 보호하는 것이지 그를 완전히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방송 모두 독고준 내면의 소리인 것이다. 독고준의 내면은 자신의 현실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환상적인 공간이동은 독고준의 혼돈된 내면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최인훈은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그의 글쓰기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주로 한다. 의식의 흐름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구사하는데 유용하다. 의식의 흐름은 사실 그대로의 생생한 인지와 과거의 시간대를 여행하거나 무시간적으로 상상하는 환상적인 내용을 묘사하는 회상(回想)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

2. 역사적 인물의 만남

독고준은 여행 중에 논개, 이순신, 조봉암, 이광수 등을 만난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 인물로 후손들에게 나름의 평가를 받아왔다. 논개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삼백년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 왔다. ‘그 사람’이 바로 독고준이며, 독고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독고준은 논개에게 자신은 쓰레기요, 별레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혼자서 가야만하는 길이 있다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한다. 자신이 여행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W시의 그 여름’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독고준은 민족을 사랑하고 희생한 논개보다 자신의 욕망 충족이 우선인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논개 앞에서 독고준은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순신은 사학자와 대화를 통해 왜란의 근본은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없이 국제 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이고, 중원의 침략은 무명지사(無名之師)이고, 패도이고, 해괴하고 망측한 사문의 난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부패한

왕조에 혁명할 의사는 없었냐는 물음에 간신이 있다 해서 사직을 바꿀 수 없으며, 선왕지도(先王之道)가 하나이므로 천하를 빼앗을 명분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사학자는 이순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한국인의 민족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문화형의 종류에 따른 당대 최고의 인텔리겐차로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유교적 세계관이며, 유교적 세계관은 이순신 정도의 인물도 그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통적인 정의에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교적 세계관은 그들 사회에 정체, 통제, 교조(教條)가 두드러지고, 극기만을 강조하는 위선자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 결과 '5천년래의 제일대사건'-일제강점기-을 초래한 것이다. 사학자는 유교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병과 역장은 독고준에게 사학자를 인수하라고 강요하지만 독고준은 거절한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세계관에 대한 독고준의 비판적 견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독고준이 조봉암을 만났을 때 조봉암은 죽은 상태이다. 조봉암을 치료하기 위해 조봉암의 자리를 독고준에게 대신하라고 말한다. 독고준은 그럴 이유가 없다며 거절한다. “나는 남의 일 때문에 내 일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173쪽)라고 말한다. 간호원은 독고준에게 “당신처럼 타락한 사람은 꼭 벌을 받고 말 거예요. 당신은 지금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173쪽)라고 비난한다. 독고준은 조봉암이 빠진 역사적인 ‘결여’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해야 한다는 부분적 자아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독고준은 역사적인 결여를 대신할 정도의 행동하는 지식인이 아니다. 그는 사유하는 관념형 지식인이다. 그래서 독고준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봉암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헌병은 이광수의 소설 <흙>에 대한 필력을 칭찬하고, 이광수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營圈)을 잘 이해하고 행동했다고 칭찬한다. 이광수는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변명한다. “아시아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에게 강점돼 있는 무렵에 그들 서양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고 나선 일

본의 모습이 그만 나를 깜빡 속인 거요……그 일본이야말로 우리 조선에 대해서는 서양이었다는 사실을 말시오.”(198-199쪽) 헌병은 근대 이후에는 정치가 근대문학의 종교이고, 죽음의 검은 사화구(死火口)가 입 벌리고 있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간 사람이 이광수라고 그를 옹호한다. 그리고 독고준에게 이광수와 함께 이곳에 남으라고 말한다. 독고준은 거절한다. 독고준은 이광수와 남으라는 헌병의 말에 거절하지만 헌병의 입을 통한 이광수를 옹호하는 입장은 독고준의 무의식에 있는 부분적 자아이기도 하다.

독고준은 여행길에 역사적 인물인 논개, 이순신, 조봉암, 이광수 등을 만나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과 함께 남아 있기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그는 매번 거절하고 여행을 계속한다. 독고준은 어떠한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전형적인 지식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여행 중에 만난 역사적 인물들에게 대변자를 내세워 그들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지만 그것은 사유에 그치는 나약한 모습으로 보인다.

독고준이 만난 여러 인물들은 모두 개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환상 여행에서 만난 그들은 다른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 독고준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이고, 독고준 내면의 소리이다. 독고준은 그들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역사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3. 구렁이 꿈

프로이트는 꿈을 원망 충족(願望充足)이라고 한다. 꿈의 작용은 본질적으로 사상을 환각적 체험으로 치환(置換)하는 것이다. 꿈의 작용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잠을 방해하는 심적 자극을 원망 충족에 의해서 제거하는 일이다. 왜곡된 꿈의 원망은 검열에 의해서 물리쳐지고 금지당한 원망이며, 원망의 존재 자체가 꿈 왜곡의 원인이며 꿈의 검열이 개입하는 동기가 된다. 꿈속에는 고통스러운 내용의 것이 많고, 특히 불안몽(不

소설과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불만이 꿈속에서 해결되는 몽유록(夢遊錄) 소설로 고대 소설에서 많이 차용되는 환몽(幻夢)의 구조이다.

구령이로 변하기전 독고준은 숙이와 철이라는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월남한 가장이다. 그는 두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검차원으로 일하면서 뒷거래까지 한다.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과 책임감은 컸다. 늘 두 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더 잘해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든든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에게는 부담이 되어 그의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었다. 구령이는 우리 전통 가정의 수호신이다.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책임감은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큰 부담이 되었다. 그가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구령이로 변신하게 했으며, 구령이는 독고준의 욕망에서 늘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다. 구령이가 되기 전에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구령이가 된 후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자신을 보며 그는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 그는 구령이의 모습으로 몸은 점점 침체되어가지만, 정신은 과거의 기억을 뚜렷이 떠올리게 한다. 그 기억들은 <西遊記>에서 독고준의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다. 결국 독고준은 현실에서 그가 욕망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현실에 대한 원망이 꿈속의 구령이로 변신하고, 그의 욕망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기억을 통해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과 W시의 그 여름과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상하며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독고준이 구령이로 변신한 꿈은 꿈속 현실의 원망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꿈속에서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구령이가 되기 전 현실에서 그가 가족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꿈속에서 구령이로 변신시키고, 구령이로 변신하여 그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가족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기

억을 회상하며 자신이 욕망하던 것들을 생각한다. 이를 통해 독고준은 자아의 정체성에 눈을 뜬다.

카프카의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 간의 소외와 단절로 인해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최인훈의 <西遊記>에서 독고준은 구렁이로 변신하여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를 가진다. 독고준은 구렁이 꿈에서 깨어나서 환상 속의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꿈을 통해 현실의 원망을 충족한다. 그리고 독고준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인훈의 <西遊記>가 카프카의 <변신>보다 한층 발전된 구조를 보여준다.

4. 방송 소리

루카치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세계의 이원성—두 영역의 적대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소외로서 표현될 수 있는 이원성—이 소설장르의 다른 모든 현상을 야기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황을 이룬다고 말한다. ‘내면과 외면’, ‘자아와 세계’, ‘영혼과 행위’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다. 소설세계의 이원적 구조를 도출해낸 것이 루카치의 가장 주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와 세계의 이원성을 전제할 때, 전통소설에서 두 영역은 ‘투쟁→충돌→화해’로 귀결된다. 그러나 현대소설에서 외부세계는 순전한 사실관계를, 자아는 자신의 목적 없는 영혼의 풍요로움을 고수한다. 외부현실의 경직과 가치절하가 발생한 뒤로 내적 삶은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후퇴하고, 더 이상 사실적 변화를 창출하지 못한다. 소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자아와 세계 사이의 배분은 더욱 일방화되고 불균형하게 변한다. 세계와 자아의 대립은 전통소설에서는 주로 ‘현실과 이상의 균열’로서 구체화되고, 현대소설에서는 외부세계와 의식 사이에 설정된다. 즉, 내면성으로 갈수록 자신의 고유한 이성과 가치를 상실해간다.²⁸⁾

28) G. 루카치,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98, 77쪽, 154쪽. 위르겐

<西遊記>에서 독고준은 여행하는 곳마다 방송, 확성기, 전화기 등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 방송의 내용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조선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이다. 총독은 일제가 패망하여 조선을 떠나지만, 40년의 잔악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온순한 태도로 그들을 떠나보내는 반도 백성의 모습에 그들은 반도 통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부는 반도에 남아 있다고 말한다. 일제는 산업의 부흥으로 발전하였으나 식민지 상실로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한다. 다시 반도를 점령할 그날을 기다리며 은인자중할 것을 권고한다. 총독의 입을 빌려서 광복 후 한국인들의 불분명한 일제 청산에 대해 비난하고, 위험한 현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언젠가는 다시 반도를 회복한다는 말은 한국인에게 다시는 제국주의에 희생당하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두 번째 방송은 상해정부의 방송이다. 상해정부는 민족의 정통(正統)성을 주장한다. 해방된 조국에 도덕이 없다고 비판하고, 사생결단의 피비린내 나는 결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독고준은 해방조국을 이끌고 있던 당대 정부의 정통성에 회의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의 시각을 그대로 전달한다. 민족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상해정부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자신의 견해를 담은 방송이다.

세 번째 방송은 새로운 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송한다. 위원장은 국가의 기초는 동족의 피라고 말하고, 독고준에게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겠으니 혁명위원회로 출두하라고 방송한다.

세 번의 방송에서 독고준은 자아와 자신이 처한 세계와의 차이가 뚜렷한 균열을 이룬다. 독고준은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와 사회 현실에서 혁명적 삶을 이루는 것보다 자아의 내면세계로 침잠하고, 환상 여행을 떠나 역사적 사실과 대면하나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독고준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그의 자아와 세계는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한다.

네 번째 방송은 불교 관음종 방송이다. 현존하는 종교에 대해 역설하

고, 중국이나 한국이 근세 시련기 새 상황의 대처에 실패했으며, 그 대안으로 불교를 제시한다. 동양인들은 그들의 최대 정력을 자기를 정복하는데 썼고, 유럽인들은 남을 정복하는데 썼다고 한다. 불교는 어떤 권위나 개인도 실체적으로 절대화되는 것을 거부하며 사유(私有)에 집착하는 것을 거부한다. 또한 불교는 ‘色卽是空 空卽是色’의 논리 속에 공과 색의 힘찬 상보적(相補的) 운동 속에 본질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히 발전하는 인류에게 무한한 자기부정을 가르침으로 속세의 정의와 우주적 해탈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모든 미망(迷妄)은 집착에서 오며 집착이 범죄와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 극심해져가는 상황에서 독고준의 또 다른 자아가 불교를 구원병으로 내세운 것이다. 독고준은 불교를 통해 자아성찰을 이루고, 세계에 대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최인훈의 다른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불교에 대한 개인적인 옹호론이기도하다.²⁹⁾ 이 방송의 소리들도 독고준의 내면에 있는 부분 자아의 소리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들은 모두 독고준의 무의식에 있는 부분 자아의 소리이다. 독고준은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부분 자아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다.

5. 부끄러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엄밀하게 응시하고 싶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인격이라는 측면에 관해, 꿈을 통해서 알게 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자각’이라고 말한다. 그림자는 무의식적인 인격의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자아의 전혀 알지 못하는 속성-대부분 개인적인 영역에 속해 있고 의식되는 일도 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어떤 점에서 그림자는

29) 최인훈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불교에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灰色人』에서 황선생이 김학과의 대화에서 불교를 현실 구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에서 구보가 불교를 현실 구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개인의 실생활 밖에 근원을 갖는 보편적인 요소로부터 성립된다. 사람이 자기의 그림자를 보려고 할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없지만 명백히 발견된다고 생각되는 성질이나 충동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자주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기주의, 태만, 아무지지 못한 것, 비현실적인 공상, 책동, 음모, 부주의, 비겁, 남다른 금전욕이나 소유욕 등에 대한 감정으로 나타난다.³⁰⁾

- ① 독고준은 논개의 잘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72쪽)
- ② 독고준은 모닥불 속에 서 있었다. 그는 거기 서 있는 부끄러움이었다.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꿀벌 소리. 은은히 들려오는 폭음. 엔진 소리. 그것은 모두 부끄러움이었다. 부끄러움이 들려오는 것이었다.(345쪽)
- ③ 그는 연이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자꾸 부끄러웠다. 부끄럽다는 것이 화가 나는데도 아랑곳없이, 그는 자기 자신이 이마에 모닥불을 이고 걸어가는 느낌이었다.(350쪽)
- ④ 그는 온몸이 모닥불이 된 것처럼 부끄러웠다.(353쪽)

독고준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계속 ‘부끄러움’을 느낀다. 첫 번째 부끄러움은 논개의 ‘장한몽’을 들으면서 그녀의 고결한 순정을 거절한 것의 느낌이다. 논개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남강물에 빠뜨려 희생했지만, 독고준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W시의 그 여름’을 향해 여행을 하는 것이다. 그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나 위대한 역사창조를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의 욕망 충족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는 논개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부끄러운 것이다.

30) 그림자는 인격의 무의식적인 부분이고, 꿈속에서 자주 인간상으로 나타난다. 그림자의 자각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모든 작은 죄악에 관해서는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야. 게다가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니 말이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M. L. 폰 프란츠, 앞의 책, 23-24쪽 참조.

두 번째 부끄러움은 재판에서 역장이 독고준의 일기를 낭독한 뒤에 느끼는 감정이다. 독고준은 자신의 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 감정이 드러나고, 자신의 태만과 야무지지 못한 점이 부끄러운 것이다.

세 번째 부끄러움은 여행 후기에 느낀 감정이다. 'W시의 그 여름'의 욕망을 향해 여행한 독고준이 W시에 도착하여 깨달은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다. 독고준은 여행하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W시의 그 여름'과 그녀만을 욕망하며 여행을 감행했다. 그런 독고준의 진정한 깨달음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한 것이다.

네 번째 부끄러움은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러나오면서 느낀 부끄러움이다. 독고준은 이유정에 대해 성적 욕망을 느끼고 방에 들어갔지만, 문간에서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섰다가 그냥 나온다. 나와서 느낀 감정이 부끄러움이다. 독고준은 이유정에 대한 충동적인 성적 욕망과 그녀에 대한 소유욕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독고준이 느끼는 부끄러움의 감정은 모두 자신의 비현실적인 공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그의 그림자 자각은 자신을 부끄러운 감정으로 인식하여 그의 무의식을 의식하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의 마음인 것이다. 독고준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무의식의 환상 여행을 통해 마음의 성장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고준이 환상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VI. 결론

최인훈 소설 <西遊記>에서 주인공 독고준의 욕망과 심리 세계를 연구하였다.

주인공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의 끝에서 환상 여행을 떠난다. 환상적인 공간 이동을 통하여 독고준은 기억에 잠재된 무의식 세계를 여행한다. 독고준의 여행 목적은 과거 ‘W 시의 그 여름날을 기억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한 욕망의 실현이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강행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또한 어린 시절 경험한 자아비판의 상흔은 그 시절의 교실로 돌아가 지도원 선생과 대면함으로써 치유한다. 독고준은 여행내내 자아와 세계의 대립으로 균열이 심화되어 간다. 이러한 균열을 투쟁과 충돌로 목적을 쟁취하지 않고, 내면세계로 침잠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여행을 통해 내면의 상흔을 치유하고, 현실을 인식하여 자아의 성장을 이룬다.

독고준은 여행하는 동안 부끄러움을 느끼고, 여행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아가 성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빚는다. 자아와 세계가 투쟁과 충돌을 통해 화해의 결실을 이루기도 하지만 다수의 인간은 투쟁과 충돌을 회피하고 내면으로 침잠하여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현실과 당면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을 성장의 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독고준은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는 회색(灰色)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의식의 환상 여행을 마친 후 자신의 방에서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자세로 보인다.

최인훈 소설 <西遊記>에서 독고준의 욕망과 심리 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최인훈은 소설에서 주인공의 심리 세계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주인공이 시대적 가치관과 개인적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이성에 대한 욕망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최인훈

소설에서 주인공의 심리 묘사는 주인공을 매개로 한 자신의 심리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西遊記>에서 주인공의 욕망과 심리 세계를 묘사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해성의 해소이다. 복잡한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소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지금까지 최인훈 소설에서 주인공의 심리 세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주인공의 심리를 연구하여 그가 하는 행동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최인훈 소설에서 주인공의 심리 세계를 연구하여 그의 소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인공이 혼돈된 세계에서 자아의 성장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인훈 소설의 다양한 분석과 연속성 있는 연구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인훈, 『광장/구운몽』 최인훈 전집 1, 문학과지성사, 2006.
- _____, 『회색인』 최인훈 전집 2, 문학과지성사, 2007.
- _____, 『서유기』 최인훈 전집 3, 문학과지성사, 2008.
- _____,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최인훈 전집 4, 문학과지성사, 2007.
- _____, 『길에 관한 명상』, 솔과학, 2005.
- _____,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솔과학, 2005, 22-23쪽.
- _____, 「문학은 현실 비판이다」, 『사상계』, 1965. 10.
- 구재진, 「최인훈의 <태풍>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2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349-372쪽.
- 김미영,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성렬, 「한국적 문화형의 탐색과 구원 혹은 보편에 이르기-최인훈의 『서유기』 연구」, 『우리어문연구』 22집, 우리어문학회, 2004, 279-308쪽.
- 김윤정,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 <서유기>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4집, 구보학회, 2008, 59-83쪽.
- 김홍연, 「최인훈 소설의 인물과 서술 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박은태, 「최인훈 소설의 미로구조와 에세이 양식 : <서유기>를 중심으로」, 『수련어문논집』 26집,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수련어문학회, 2001, 173-196쪽.
- 박혜경, 「역사라는 이름의 카오스」, 『서유기』 최인훈 전집3, 문학과지성사, 2008. 366-381쪽.
- 배경렬, 「최인훈 『서유기』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고찰」, 『인문과학연구』

- 11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129-150쪽.
- 송재영, 「분단시대의 문학적 방법」, 『서유기』 최인훈 전집3, 문학과지성사, 1996. 354-365쪽.
- 양지욱,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2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181-202쪽.
- 양윤모, 「최인훈의 <서유기> 연구 : 환상의 의미 분석」, 『어문학연구』 8집,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8, 0-12쪽.
- 양윤의, 「최인훈 소설의 주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연남경, 「최인훈 소설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유중호 外, 『문학비평 용어사전 상, 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국학자료원, 2006, 1038쪽.
- 윤대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회색인>, <서유기>를 중심으로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한국학연구』 1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73-192쪽.
- 이선영, 「知識人の 意識構造」,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75-182쪽.
- 이양식, 「최인훈 소설의 인물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장사흠, 「최인훈 소설의 정론과 미적 실천 양상-헤겔 사상의 비판적 수용과 극복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정재서, 「여행의 상징의미 및 그 문화적 수용-목천자전(穆天子傳)에서 최인훈의 『서유기(西遊記)』까지」, 『중어중문학회』 33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3. 275-292쪽
- 최명민, 「문학에 투영된 자살의 심리사회적 이해: <광장>과 <숲속의

- 방>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9호,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10, 163-203쪽.
- 한형구, 「최인훈론:분단시대의 소설적 모험」, 『문학사상』, 1984. 4.
- 황 경,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예술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Aniela Jaffe & Jacobi Jolande & M. L. von Franz, 『C.G. 융 심리학 해설』,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2008, 6-135쪽.
- Bergson Henri, 『물질과 기억』, 김재희 역, 살림, 2008, 18-129쪽.
- Freud Sigmund,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역, 범우사, 2008, 220-295쪽.
- Schramke Jürgen, 『현대소설의 이론』, 원당희·박병화 역, 문예출판사, 1995, 83-89, 182쪽.
- Lukács Georg,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98, 77-154쪽.

<Abstract>

Study on Choi In-Hoon's novel, *Seo-Yu-Gi*,
focused on the desire and psychology of the
Dok Go-Joon.

Park, Hae-Rang*

Choi In-Hoon's novel *Seo-Yu-Gi* belongs to one of the most abstruse novels. As an unrealistic novel, it consists of multi-layered structures. He narrates psychological realm of the characters very closely. Especially, the state of mind of the protagonist in his behavior works as an important element. The personality of characters in various Choi's novels appear repeatedly and continuously, and he describes their psyche delicately. Reduced to a chaotic state, the protagonist in the novel expresses his desire for the other sex variously. However, until now, studies on the mentality and psychology of the character have been rare. Therefore, I will present the study on the character's mentality and psychology as a new argument method, and I'd like to contribute to reduction of abstruseness and expand the study range.

This study aims at studying on the desire and psychological realm of the protagonist, Dok Go-Joon in *Seo-Yu-Gi*. It becomes important task to express mental state and to study the mentality in literary researches. A course of study on the complex mentality of the character is very useful to analyze the motivation of the behavior and

* Dongguk University

to explain the meaning.

Dok Go-Joon in *Seo-Yu-Gi* takes a fantasy journey at the end of hall stepping out of the Lee You-Jung's room. Through moving space, Dok Go-Joon travels the world of unconsciousness embedded in his memory. The purpose of his travel is to fulfill his desire to meet her. She remembers the summer day of W city. What he realizes is longing for his family and loving for his mother. Also, the scar caused by self criticism in his childhood is healed up by facing instructor in the classroom of the time. The rupture between his ego and world becomes worse through the entire trip. This rupture begins to withdraw to his inner world. However, he heals the scar through the repetitive travel, recognize the reality, and accomplish self-development.

Dok Go-Joon feel abashed during the trip and still he does after the trip. It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is own identity for him to reflect on his behavior and have shyness.

Humans always come into conflict between ego and world. Ego and world can bear a fruit of reconciliation, but most humans tend to avoid the struggle, conflict withdraw into the inner world, and isolate themselves from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growth and maturity, it is uncomfortable fact that humans do not face the reality and isolate themselves from the society, but the reality is quite cold and different because people can not do any other things. Dok Go-Joon is "A Gray man" who lives in this reality. However, his image, which looks out the window for rainy days after unconscious fantasy journey, can be seen as an effort to face and embrace the reality.

Description of Dok Go-Joon's desire and state of mind in *Seo-Yu-Gi* can be appraised as structurization of behavioral meaning and psychological system. By looking for the process for Dok Go-Joon to establish self-development and values, I can broaden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is work and provide a framework for various and continuous study on Choi's novels.

Key Word : Conflict between ego and world, criticism of reality, establishment of identity, fantasy journey, multi-layered structure, realization of desire, self-development, sense of shame

■ 논문접수 : 2014년 7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